



문화지도 프로그램 : 피지의 무형문화유산 목록작업 및 전통지식 정보체계 수립

시미오네 세부드레드레
피지 토착민 언어문화연구소 연구원

I . 개요

문화지도프로그램 *Cultural Mapping Program*은 피지 정부가 법률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한 후인 2004년에 시작되었다. 이 법률안은 특히 토착 지식 *Indigenous Knowledge* 과 문화 표현 *Expressions of Culture*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여전히 초안물 상태로 남아 있다. IFLC가 그 후 문화 지도작성에 대한 책임을 맡게 되었는데, 여기에는 피지 14개 모든 지방의 토착 유·무형문화유산의 수집, 녹음, 기록을 포함하고 있다. 문화지도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그 후 전통지식 및 문화적 표현 보호에 대한 법률을 통해 보호될 것이다.

문화지도프로그램은 국가차원의 사업으로 피지 14개 지방을 포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지도화된 지방은 세루아 *Serua*, 르와 *Rewa*, 나모시 *Namosi*, 남 타이레부 *Tailevu South*, 북 타이레부 *Tailevu North*, 오바루 *Ovalau*, 모토리키 *Motorikij*, 코로 *Koro* 섬들이다. 문화지도작업은 아직 지도화가 완성되지 않은 지방에도 착수될 것이다. 아직 진행되지 않은 지방으로는 로마이비티 *Lomaiviti*, 바Ba, 부아 *Bua*, 카카우드르베 *Cakaudrove*, 카다부 *Kadavu*, 라우 *Lau*, 로마이비티 *Lomaiviti*, 마쿠아타 *Macuata*, 나드로가 *Nadroga* · 나보사 *Navosa*, 나이타시리 *Naitasiri*, 라Ra 등이 있다.

II. 목적

전통지식 및 문화적 표현에 관한 국가목록과 이에 대한 보호를 위한 국가 목록 수립은 아래의 문제들을 염두에 두고 시작했다.

- 유·무형문화유산 보존과 보호
- 문화다양성의 가치 증진
- 문화권의 존중
-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의 요소로서 전통에 근거한 창조와 혁신 증진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유산의 보호자들이 그들이 가진 것을 평가하고, 상업적인 측면에서 그들의 전통지식 및 문화적 표현을 활용함으로써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 줄 것이다. 게다가 이는 지역주민의 고용 창출을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1. 사업의 이론적 근거

이 사업은 아래의 문제들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되었다.

- 1) 세계화로 인하여 문화의 획일성이 피지 문화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
- 2)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새로운 문화를 수립하여 전통 문화의 뿌리를 뽑을 수 있다.
- 3) 피지의 다문화주의 및 문화다양성의 과제는 종종 문화 정책의 조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토착민 인구의 생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 4) 주요 유산 보유자들의 사망으로 다시 재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피지 문화의 중요한 부분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담당 팀은 2년 간 3개 지방에서 작업을 수행했으며, 이 속도라면 12년 안에 14개 지방을 완성할 수 있게 된다. 피지 인구(445,907) 1.5%(2003년 통계)가 70세 이상이기 때문에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정보를 잃을 수 있는

위험성이 높다. 통계청의 2003년 수치에 따르면, 70세 이상의 피지 남성의 현재 사망률은 107.58이며 여성의 경우 94이다. 이것은 문화와 언어의 수호자인 노인들이 매우 빠른 속도로 사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5) 토착민 젊은이들의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주와 이민 현상으로 인해 노인세대에서 젊은 세대로 노하우, 기술, 관행을 전수하는 데 공백이 발생했다.
- 6) 토착민 남녀 젊은이들의 실업률 증가.
- 7) 전통지식 및 문화 표현물의 과도한 상업화.
- 8) 원주민들이 주요한 정보제공자로서 혁신, 새로운 창조, 연구 활동에 기여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 9) 피지문화 연구를 교육 과정에 포함.
- 10) 전통지식 및 문화적 표현의 보호를 위해 제안된 입법조치를 완전히 이행하고 실시한다. 문화적 표현과 그 저작권에 대한 공공의 소유권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문화지도프로그램은 피지 정부가 토착민들의 지식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법률안을 채택하고 비준한 후인 2004년부터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은 4년 반 동안 제한된 인력으로 운영되어 왔다. 담당팀은 무수한 장애물을 잘 극복하여 3개 지방에서 문화지도를 작성할 수 있었고, 2009년 5월, 4번째 지방을 완성할 예정이다. 문화지도작성팀은 티키나의 오발리우 *Ovalau* 지역의 지도 작업도 완성했다. 본부는 문화유산부의 요청에 따라 오발리우 지역을 대상으로 문화지도작업을 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것은 레부카 *Levuka*를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에 포함시킨다는 신청서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III. 배경

국가 목록화사업은 전통지식 및 문화 표현물의 주요 요소와 피지의 14개 지방에서 보유자 발굴 작업을 촉진한다. 피지의 문화 정체성과 관습의 지속성은 보유자들의 구전 전승과 비공식 교육에 의존하고 있다. 그간 피지 언어와 문화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 기록하기 전에는 단 한 차례도 광범위한 조사가 실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소실되었다. 토착 청소년들의 도시 이주현상이

심해지는 경향을 보였다. 노인이나 전통 교육자·연행자가 그들의 지식과 기술을 전승해 줄 통로가 매우 적어졌다. 그래서 이들이 죽고 나면 그 재능과 노하우는 함께 묻히게 되었다.

2003년 피지 당국은 '전통 지식 및 문화적 표현의 법률안'을 채택하는 작업에 착수하게 되었다. 이 작업은 의회에서 이를 통과시키고자 하는 작업이며 더욱 중요한 것은 이를 시행하고자 하는 작업이다. 이에 따라 전통 지식과 문화적 표현에 대한 국가 목록화사업 수립 계획이 만들어진 것이다.

2004년 당국은 피지의 마을 두 곳과 1개 지역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시범연구에 착수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아래의 변수들이 시험되었다.

- 마을이나 지역에서 착수되고 있는 연구의 예상 기간
- 목록화사업의 전반적인 과정을 촉진하기 위한 인력
- 계획된 마을을 방문하는 데 소요된 혹은 할당되어야 하는 기금
- 편집, 검사, 정보제공자로부터 보고서 수합 등을 포함한 모든 과정을 완성하는 데 걸리는 기간
- 인식 제고 메커니즘 — 목록화 사업 개념을 효율적으로 보급하는 데 필요한 요소
- 기준이 되는 질문과 대답, 정보제공자의 문제에 대한 이해
- 아직 발굴되지 않은 전통 지식과 문화적 표현의 부가적인 문제나 측면을 발굴하는 것(초기 질문서와 개략적인 질문의 재검토)

2005년 5월에는 다양한 경험이 있고 자격을 갖춘 연구자 6명이 한 해의 정보 수집 작업 착수를 위해 현지 조사에 고용되었다. 철저한 고용 절차에 따라 채용이 이루어졌다. 유네스코 문화 지도 기금의 후원으로 1주간의 훈련워크숍이 개최되었고, 이에 따라 연구자 6명은 피지 국가 목록화사업의 선행과제와 문화지도 절차에 익숙해지게 되었다. 2명의 국제 인류학자의 도움으로 간단하지만 지나치게 학술적이거나 전문적이지는 않은 매뉴얼이 개발되고 준비되었다. 이들 인류학자들은 때마침 각기 다른 이유로 피지에 머무르고 있었다. 2005년 12월, 연구자 6명은 나모시(Namosi)와 세루아(Serua) 지방을 완성했다. 연구 대상의 방대함과 적절한 편집자의 부족 때문에 정보의 필사와 판본 대조작업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완전하게 기록되고 편집된 것들은 데이터베이스로 저장되었고, 해당 장소와 지

역에 대한 올바른 정보라고 최종적으로 인정되기 전 마지막 정독을 위해 사본이 정보 보관자에게 보내졌다.

정보 수집 전, 물론 작은 규모이기는 하지만 인식 제고 캠페인이 시범사업을 위해 제안된 장소에서 착수되었다. 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 의회에 본 방문의 목적 및 목표를 적절하게 설명했다. 이들 지방의회는 마을 주민들에게 사업의 전체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보급하는 것을 지원했다. 그 후로, 인식 제고라는 주제는 방문이라는 ‘복음’을 공식적으로 보급하는 데 사용되었고 해당 지역에서 착수되는 연구에 대해 마을사람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할 때 활용되었다. 사전 방문 외에 문화지도사업에 대한 정보를 보급하기 위한 다른 방법들로는 아래의 내용을 들 수 있다.

- 피지 라디오 원One의 주간 프로그램(매주 화요일 방송)
- 학교, 마을, 지방 의회를 대상으로 보급할 소책자와 포스터 제작
- 지방 관청 행정관의 요청으로 지방 관청에 자주 방문하는 마을 이장에게 설명회 실시
- 일시와 기간이 다르지만 계획된 회의 중 티키나(Tikina 지역) 의회에서 연 구자들이 프레젠테이션 실시
- 선행과제 대한 설명을 집단·개인·NGO가 요청
- 지방 토착 집단·NGO·정부 당국 등의 워크숍·패널 토론과 논의에 참여

IV. 무형문화유산 보호 현안

피지 기술청 *Institute of Technology* 이나 피지교사협의회 같은 교육기관이 비슷한 성격이지만 취지가 다른 사업에 착수하고 있다. 피지의 텔레비전 방송국은 노다가우나 *Noda Gauna* 프로그램에서 이 프로젝트가 보호하고자 하는 것을 상용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피지 대학교는 최근 커리큘럼에서 정보 연구, 기록, 활용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피지 내무부를 정보제공자의 상실물, 미래 세대를 위한 정보의 기록화와 보호에 대해 우려하는 데 반해 교육기관은 오직 현장에서 수집된 정보를 상용화하는 데 주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지 당국이 정부 기관으로서 피지인들을 통치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문제들의 실권을 잡고 있다

고 봐야 한다. 그러므로 지방의 마을 현장과 주민들과 관련된 사적 영역 활용을 둘러싼 모든 사업은 시행 전에 피지당국과 일차적으로 협의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피지 문화유산과 지적재산의 구성요소가 걱정스러울 정도로 많이 상업화되어 남용되고 있다. 전통지식 및 문화적 표현의 소유자의 지식을 보호하거나 보답이나 보상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법적 메커니즘은 존재하지 않는다.

V. 조정

1. 행정부처와 국가적 차원

피지의 국가 목록화사업의 개념이 처음 수면 위로 떠올랐을 때, 피지 당국과 토착민 관련부처 간에 열띤 논쟁이 있었고, 사업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계속되고 있다. 피지 당국 이사회는 사업을 위해 특수하게 고안된 질문지 작성에 도움이 되었고, 이에 따라 국가 목록화사업을 담당하는 내부 소위원회에 피지 당국 이사회 FAB 대표가 포함되게 되었다. 더군다나, 목록화사업을 둘러싼 활동에서 지방 의회 대표들은 본 사업 진행에 있어 꼭 필요한 요구에 대해 자문을 하고 있고 진행과정을 적절하게 알려줄 것이다.

더욱이, 피지 당국 이사회는 인식 제고 캠페인 지원과 해당 마을에 연구자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데 있어 매우 활발한 역할을 했다. 그밖에도 피지 내무부는 전통 지식 및 문화적 표현에 대한 시범 법률 작성과 통과 과정에서 법제처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작업을 수행했다.

2. 지역적인 노력과 협력

국가 목록화사업 시행의 계기가 된 전통지식 및 문화적 표현의 법률안은 태평양 공동체 사무처 문화프로그램 *Cultural Affairs Programme of the Secretariat of the Pacific Community(SPC)*에 의해 1999년 '법적 보호 사업 *Legal Protection Project*'의 일환으로 지역적인 노력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 사업은 초기에는 1999년 2월 15일-19일에 유네스코와 공동으로 개최한 '전통지식 및 문화적 표현의 보호를 위한 심포지엄

*Symposium on the Protec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and Expressions of Culture*를 통해 착수되었다. SPC에 의해 2001년 2월 전통지식 및 문화적 표현에 대한 지역 전문가 워크숍이 열렸고 유네스코-사무처 포럼이 그 후 개최되었다. 이어서, 지역적 법적 체계가 개발되었고 2002년 7월 3일부터 4일까지 포트빌라(*Port Villa*)에서 열린 경제장관 포럼에서 발표되었다. 그리고 후에 SPC·유네스코·포럼 사무국에서는 2002년 9월 16일에서 18일 사이에 노우메아(*Noumea*)의 지역 문화장관 회의를 주관했다. 문화장관회의는 피지가 법률안을 채택하고 실행계획을 채택하도록 촉진하였다.

2004년 2월과 이어 2004년 10월, 이 부서 내 사업 담당자들이 일본 오사카와 동경에서 열린 목록화사업 관련 연속 세미나에 참가했고, 이 자리에서 피지가 수행한 사업을 알렸다. 참가자들과 세계지적재산권기구 및 유네스코 대표들은 사업 진행 경과를 보고 매우 놀라워했고, 이 부서의 절차를 아테지 지역의 다른 국가들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2005년 11월, 같은 담당자가 목록화사업을 주제로 열린 유네스코 파리 본부 회의에 초청을 받았다. 유사한 성격의 워크숍이 같은 해 12월 태국에서 개최되었고, 여기에도 위에서 언급한 담당자가 고문으로 초청되었다. 이것은 피지의 목록화사업모델에 대한 이 지역의 관심이 증대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VI. 정책 환경

1. 부서별 정책과의 관련성

목록화사업은 20년 개발 계획(2001-2020)의 12.10에 나타난 정책과 전략을 시행하는 데 사용된다. 이 계획은 피지의 사회경제 발전 속에서 피지와 로투만(*Rotumans*) 토착민들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며, 토착민들의 보물인 문화와 유산의 발굴, 연구,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밖에도 이 사업은 토착 지식과 연계하여 집단·공동체 소유권을 위한 새로운 법에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다. 방금 언급한 정책들은 아래 두 가지 중요한 목적 때문에 문화 분야에서 우선순위가 아주 높다. 피지의 토착 문화와 유산의 보호와 보존, 유·무형문화유산과 관련하여 공정무역, 관행 및 지적소유권의 보호를 보장해주는 것이 그것이다. 전통지식 및 문화적 표현을 위한 법률안을 채택하기 위하

여 현 지적재산권법규정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 특별히 6.5에 명시되어 있다(문화와 유산을 ‘피지 문화 유산을 보호, 보존, 관리’ 하는 정책 목적의 주요 이행 표준으로 한다).

문화지도는 토착부의 핵심 우선순위 중 하나이며, 임시 정부에 의해 배정된 실행 가능한 사항들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토착부에 의해 2008년 통합 계획에 포함되었다.

2. 국가정책과의 관련성

문화지도사업은 레와Rewa의 로마니코로Lomanikoro에서 2006년 3월 있었던 내각의 결정으로 더욱 발전되었다. 게다가 과도정부의 우선순위 영역이기도 하다. 20년 개발 계획의 12.10은 ‘2003-2005 정부전략개발계획Government Strategic Development Plan’에 상응하는 것이다. 정부전략개발계획은 피지의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는 토착민들의 정체성을 보전, 개발, 증진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반영되어 있는 것은 현재와 미래 세대들을 위해 문화와 유산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목적을 가진 국가 목표이다. 초기에 국가 목록화사업은 지방의 고용 기회를 창출함으로써 피지의 문화 및 유산과 관련된 국가적 목표와 관련되어 있었다.

토착부는 2009년 토착부 실행계획에 확실하게 개요가 그려져 있는 ‘토착민들의 계몽’에 집중하고 있다. 피지 언어 및 문화 기관의 주된 기능은 아이타우케이 iTaukei의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피지 당국 시행령은 아이타우케이의 복지를 위한 훌륭한 거버넌스를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이것이 피지 당국의 주요 역할 중 하나이다.

변화, 평화, 진보를 위한 시민 현장의 문서는 더 나은 피지를 재건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여기는 일곱 개 주요 원칙이 있다. 그 주요 원칙 중 하나가 ‘현대화되고 발전된 피지에서 피지 토착민들의 주류화’이다. 이에 덧붙여, 시민 현장의 7번째 주요 원칙에서는 지방 차원에서 통합 개발 구조를 수립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초안 제출 시기에, 현장은 피지 행정부를 피지 토착민의 통치 기구로 명기하고 있는데, 이 행정부는 문화와 유산 증진 같은 일부 분야에서는 성공을 거두기도 했지만, 경제, 사회 발전 영역에서는 실패했다. 그러므로 현장은 피지 토착민들의 이익이 국가 개발 계획과 연계 부처와 시행과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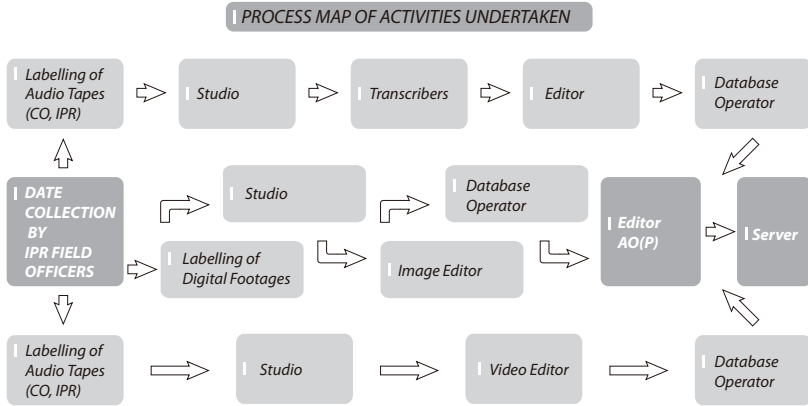
된 다른 시행 부처의 프로그램 속으로 주류화되는 것을 증진하고 있다. 이러한 피지 토착민의 유·무형적인 측면을 기록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 같은 문제는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한다.

개혁 과정에서 고령 토착민 인구 감소에 따른 위협이 의미하는 바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구전 방식으로 토착민의 정체성, 인류학, 역사, 지적재산권 문제에 의존하는 것은 기록화 방식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이것은 토착민 공동체 내의 분열과 불안정의 주요 원인이 되어 왔다. 또한, 사업체와 개인에 의해 남용되어 오기도 했다. 인류학적, 역사적인 데이터의 기록화와 저장은 토착민사회를 계몽하고 지식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것은 안정으로 가는 길에 크게 기여하여 결국 경제적 번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중요한 것은 세계화의 가속화와 관련하여 생물학적 다양성과 지적재산권에 대한 과제의 해결을 위하여 지적재산권 소유자의 시의적절한 지도화와 발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같은 이유로,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와 토착민을 위한 유엔 헌장을 통하여 유엔이 토착민 문제의 보호와 증진을 보장하는 정책을 채택했다. 이 기관은 또한 아태지역 토착민 사회의 유·무형적 측면을 보호하기 위해 아시아 태평양 유네스코 문화센터 ACCU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고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기관의 실무담당자 두 명은 일본의 유·무형문화유산이 어떻게 기록되고 보호되고 증진되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일본 도쿄와 오사카에서 열린 훈련 과정에도 참가했다.

Ⅶ. 사업 구조

아래의 도표가 사업 조직구조의 세부사항을 묘사하고 있다.



1. 인력과 운영

현재 이 프로그램은 사업담당자 15명이 운영하고 있다. 사업 연구 담당자 6명이 있고(2 EOs and 4 COs), 이는 토착민 지적 재산권 사업 IPR에 의해 분류화되어 있다. 그리고 사업 행정 담당관 *Project*의 감독을 받고 있다. 이에 덧붙여 이 기관은 최근 추가로 8명의 사업 담당자들을 모집했고 이들의 봉급은 피지 신탁기금에서 나온다. 8명의 담당자들은 필사자 4명, 편집자 2명, 데이터베이스 운영자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사업 연구 담당자

데이터 수집과 레코드 담당 업무 : ‘마타과리 *mataqali*’의 존경받는 지도자를 인터뷰하고 컨설팅한다. 현장사업 보고서를 편찬한다. 개인 작업 계획과 월단위의 작업계획을 제출한다. AO/P에게 직접 보고한다. 사업담당자 6명이 2명씩(남녀) 한 그룹이 되는 방식으로 팀을 짠다. 3개의 프로젝트 팀이 있고 한 팀이 일주일 씩 한 마을을 배정 받는다. 그러므로 한 주에 마을 3개를 다룰 수 있다. 사업 담당

자들은 현장에서 2~3주를 보낸 후 1주일 정도를 사무실에서 보낸다. 이것은 사업 담당자들에게 모든 데이터를 편집하게 해주고 몸을 추스르고 그 다음 주에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게 해준다.

3. 기록자

4명이 녹음한 청각 자료의 녹취 담당한다. 이와 더불어 이들은 청각자료가 편집 작업을 하도록 넘겨지기 전에 이를 타이핑해서 필사본으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

4. 편집자

편집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 데이터베이스 양식과 형식에 따라 필사된 정보를 편집
- 오디오 로그자료에 상응하는 데이터베이스의 청각 형식과 백업사본의 생성에 따라 청각 기록을 편집
- 컴퓨터에 입력된 디지털 이미지 기술을 편집
- 데이터베이스 형식에 맞춰 비디오 자료영상 편집
- 입력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편집 그리고 비교검토(평가)

5. 데이터베이스 운영자

두 명의 데이터베이스 운영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 각 기록의 디지털화와 디지털화된 자료의 백업사본 생성
- 사용된 형식과 기술에 맞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디지털 이미지 기술을 입력 및 백업 생성
- 청각 · 시각 · 디지털 이미지와 필사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입력

6. 행정 실무 담당관(사업)

사업의 조정자 역할과 시행을 담당한다. 문화 당국, 이해당사자들과 협의한다. 인식제고 프로그램 준비와 고안, 절차의 평가와 모니터를 담당한다. 정책 자문과 분석을 제공한다. 보고서, 재정 예측, 작업 프로그램 및 예산견적을 제출한다. IFLC의 소장에게 직접 보고한다.

이 글을 준비하는 비용도 포함하고 있는 재구성 계획에 따라 현장 실무담당자 7명과 부장급 연구 담당관 1명이 새로운 사업 구조의 구성원으로 추가 모집될 것이다. 이에 더하여, 모든 현장 실무담당자의 직책이 임원으로 업그레이드되어 작업의 편의를 도모하고 연구 직무에 합당한 특정 기술과 자격을 갖추게 될 것이다.

VIII. 전통지식과 문화적 표현의 데이터베이스

2005년 해당 마을과 지방에서 수집하여 최종적으로 편집된 데이터의 입력을 활성화하는 사업을 위해 데이터베이스 체계가 개발되었다. 지방과 해외 컨설턴트들이 필요한 IT와 데이터 저장의 필요성에 부합하기 위해서 언어 배치를 수행하기 위해 활용되었다. 이것은 아이타우케이*iTaukei* 토착어로 된 명령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첫 번째 소프트웨어였다. 이것은 이 기관에서 언어학 및 통역 전문가들에게 유용하게 사용되었다. 또한, 이후에 저장된 데이터에 접근하게 될 사람들을 위하여 만든 것이다.

이 시스템은 현장에서 축적된 정보가 적절하게 저장될 수 있게 해주었고, 각각의 문화적 표현이 적절하게 정리·보존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데이터는 쉽고 효율적으로 검색될 수 있다. 전통 보유자의 동의가 있으면, 유산 보호자나 개인 혹은 집단이 접근하고 싶으면 언제라도 검색할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 속에 입력된 기록은 다음의 형식으로 먼저 아웃라인된 영역에 근거하여 작성된다. 즉 텍스트, 이미지(디지털 사진), 청각 자료 필름 비디오 자료를 수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각각의 피지 마을은 우리의 데이터베이스에 무형문화유산을 기록하는 통로가 될 것이다.

IX. 결론

문화지도사업은 초창기부터 정부의 지원으로 민족대표자협의회에 의해 요구된 작업을 수행해 왔다. 인력충원, 기금모집, 운영 문제 등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과제가 남아있다. 피지는 올해 8월까지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협약에서, 그리고 2005년 3월 17일부터 18일 사이에 파리에서 개최된 무형문화유산 목록화사업을 위한 전문가 회의에서 이행하도록 권장된 활동은 2004년 이래 이미 피지 정부에 의해 착수되고 있는 활동이다. 더불어 피지 정부는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재활성화의 중요성에 중점을 둔 회의와 세미나에 참가하여 왔다. 유산관리자에 의한 보호 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및 발굴과 함께 본 사업은 기록화, 저장, 재활성화 활동과 관련하여 긍정적으로 여세를 몰아가고 있다.